日本語學硏究 第23輯(2008. 12. 20. pp.47～58)

한일 유행가의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

-1925년부터 1944년까지를 중심으로-

金姬廷**

〈 요 지 〉

본고는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시대상 및 대중의 정서를 고려해서 한일유행가의 주제 중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적인 특성을 비교 고찰해 보았다. 상위주제 희비 중에서 「기쁨」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슬픔」 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이는 식민지배를 주도하고 있던 일본과 피지배국인 한국의 현실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기쁨」 을 표출하고 있는 어휘는 한일양국의 정서적인 차이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고 특히, 일본의 유행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외래어와 외국어에는 서구문물에 대한 수용과 관심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일양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위주제 희비 중에서 「기쁨」 보다는 「슬픔」 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이 가장 많았다. 이별의 슬픔에 관한 정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망국과 망향의 슬픔은 일제강점기라는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님,봄」 등과 같이 당시의 시대상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슬픔을 표출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공통어휘 「涙·눈물, 恋·사랑, 花·꽃, 夢·꿈, 夜·밤, 心·마음, 別れ·이별, 春·봄, 雨·비, 思い出·추억, 月·달, 船·배」 등은 양국 유행가에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널리 쓰인 어휘들로, 이 중 내면의 심정을 토로하는 어휘가 많았다.

금후에는 본고의 결과를 토대로 1945년이후의 한일양국 유행가의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을 통해 유행가에 표출된 어휘의 특수성과 변화양상을 보다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유행가에 반영된 유기적인 어휘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싶다.

키워드 : 유행가, 어휘, 기쁨, 슬픔

1. 서론

본고는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한일 양국의 사회상 및 대중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양국 유행가의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가 표출하는 의미적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유행가에는 각 곡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나타내는 주제가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유행가의 어휘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정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유행가의 어휘가 표출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행가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 유행가의 주제 중에서 희비를 표출하고 있는 어휘의 특징과 변화의 양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일 양국 유행가에 담겨지는 어휘의 고

www.kci.go.kr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연구교수, 일본어학.

유한 특성과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른 유행가에 나타나는 어휘의 변화양상과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과 피지배국인 한국의 현실이 유행가에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유행가의 어휘 연구는 일본의 경우, 가토 고지(加太こうじ, 1970)에서 시작된 이래, 계량언어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한 자료제시와 분석을 한 미즈타니 시즈오(水谷靜夫, 1978),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어휘조사를 통해 유행가에 나타난 어휘의 변천을 밝힌 나카노 히로시(中野洋, 1977·1982), 유행가 어휘의 다양함과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한 이토 마사미쓰(伊藤雅光, 1997), 록음악의 가사를 제재(題材)로 분석을 시도한 츠츠미 쇼지(堤昌司, 1991), 엔카(演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한 오카노 벤(岡野弁, 1988)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 유행가에서 두드러지는 영어표현의 증가에 대한 용례분석이 エツコ·オバタ·ライマン(1996)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조연구의 경우, 나카노 히로시외 3인(中野洋, 王志英, 郭挙昆, 中野文子, 1995)과 나카노 히로시외 2인(中野洋, 王志英, 郭挙昆, 1996)에서 일본과 중국 유행가의 계량언어학적인 대조분석을 통해 사회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 안에서 유행가의 역할과 향유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휘의 의미분석 및 양국의 유행가에 나타난 어휘의 차이점에 대한 원인규명이 부족하다.

한국의 경우, 유행가 가사의 문학적, 어학적 고찰을 시작한 유화웅(1976), 유행가를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일차적인 분석과 가사의 상징적인 의미분석에만 치중한 박미정(1991), 유행가의 수용 및 발전양상을 국문학과 평론의 관점에서만 서술한 박찬호(1992), 이영미(1993), 조동일(1994), 장유정(2004) 등이 있고, 이 밖에 최상진·조윤동·박정열에서는(2001) 유행가의 가사를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유행가에 나타난 어휘를 통한 언어적 고찰은 아니다. 대조연구의 경우, 김광해(1998·1999)에서는 한·중·일 3국 유행가의 계량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어휘분석을 최초로 시도했지만 3국의 각기 다른 시대의 유행가의 어휘를 무리하게 비교를 하여 단순대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유행했던 한일 유행가의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를 중심으로 비교고찰을 하여 유행가에 나타난 어휘가 당시에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 대상 시기는 한국에 유성기와 레코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1925년부터 일본의 제 2차세계대전의 패전 직전인 1944년까지로 한정한다. 먼저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한일 양국의 유행가 중에서 희비를 상위주제로 하는 유행가를 대상으로 하되, 기쁨과 슬픔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성과 그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은 한일 양국의 1925년부터 1944년까지 각 시대에 널리 인기가 있어서 대중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는 유행가들이다[1]. 일본 자료로는『新版 日本流行歌史 上, 中』중 1925년부터 1944년

www.kci.go.kr

1) 본고에서는 음반으로 생산되어 상업성을 띤 성인 대상의 노래인 유행가로 한정하기로 한다. 판소리, 잡가, 시조 등의 구비 전승되는 구전가요와 음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민중가요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구전가요는 활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사나 발행연도를 알 수 없고, 특정집단에서 즐겨 부른 동요나 가

까지의 총 397곡을, 한국 자료로는 『유성기로 듣던 不滅의 명가수(1925-1944)』(신나라레코드사, 1996)의 438곡이다. 이 곡들은 양국의 가요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수록 작품들의 발표 연도와 작사자, 작곡자, 가수를 명기하고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 전체곡수와 희비의 곡수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한일 유행가의 전체곡수와 희비의 곡수

	시기	전체곡수	희비의 곡수	기쁨의 곡수	슬픔의 곡수
일본	1925-1944	397	70	12	58
한국	1925-1944	438	107	5	102

본고에서는 유행가에 반영된 양국 대중의 보편적 정서와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유행가에 담겨지는 어휘의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유행가의 개별적인 어휘가 나타내고 있는 상위 개념인 주제별 연구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2]. 이를 통해 한일유행가에 나타난 어휘들이 공통의 의미 특성과 차별성에 따라 희비를 나타나는 어휘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희비의 의미 영역 및 속성 내의 단어들은 일정한 상하위어 관계를 이루고 서로 의미망을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어휘의 계층적 분류를 위해 『類語国語辞典』[3]과 『日本語語彙大系 1 意味体系』[4]를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5] 이 두 자료를 통해 각 주제들의 상위 개념어를 찾아 「희비·애증·심경·의향·영욕·유도」 등과 같은 6개의 상위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중 희비에 한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어 단위」[6]의 조사 단위로 어휘를 분할하였다. 이 조사단위는 단어가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어라고 하면 '歌', '涙', '사랑', '고향' 등 단일어 뿐만 아니라 'お元気', '下駄足駄', '寒寒', 'うちそと', '打ち明ける', '미소짓다', '입신양명'등 복합어와 파생어 등도 있기 때문에 단어 그 자체는 유행가 어휘 조사의 단위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8종류의 어휘 조사를 통해 각 자료에 알맞은 조사 단위를 세운 바 있다.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사용한 조사 단위는 장단위계의 5종(어절 단위, α단위, W단위, 장단위1,

---

곡 등은 대중의 인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단어를 의미적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사전편찬이나 기타 어휘의 개념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어휘의 연구는 '개념분류', '어휘분류' 등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로제(Roget 1852)의 『시소러스(thesaurus)』, 『分類語彙表』(1964), 『類語国語辞典』(1997)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제별 항목분류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주제 및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 항목들과 동의어 및 유사한 개념의 어휘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3) 大野 晋·浜西正人(1997), 『類語国語辞典』, 角川書店.

4) コミュニケーション 監修(1998), 『日本語語彙大系 1 意味体系』, 岩波書店.

5) 차준경(2004) 『국어명사 다의 현상의 체계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pp.38-39. 영어의 워드넷은 이러한 언어학적 연구와 심리학적인 연구에 기반들 두고 단어의 개념망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드넷은 동의어 집합(synset)을 기초로 하여 상하위어의 개념망을 구성하고 상위어는 특정한 단어의미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개념에 계층이 존재하고 계층구조가 언어를 유용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 의한 것이다. 개념의 계층구조는 여러 어휘관계(유의어, 반어의, 상하의어, 부분어)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행가에 나타난 어휘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이와 같은 어휘 개념의 계층구조를 참고하기로 한다.

6) 이 한섭(1997), 「어휘 조사 단위에 대한 연구 - 일본 국립 국어 연구소의 각종 어휘 조사 단위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의 단위 설정 기준에 입각하여 조사단위를 추출하였다.

장단위$_2$)과 단단위계 3종(β단위, 단단위, M단위)등 모두 8종이다. 장단위계의 조사 단위는 문절(文節)[7]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위이며, 단단위계 단위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소를 조사하는 단위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유행가 어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장단위계의 단위를 설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단단위계 단위도 병행하였다.

3. 희비(喜悲)

희비는 기쁨과 슬픔으로 최초의 인간 감정을 표출하는 작용이다. 희비는 즉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초적인 감정의 상태에 따라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인 「기쁨」과 「슬픔」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행가에서는 기쁨의 내용보다는 슬픔의 내용이 월등히 많다. 이는 기쁠 때보다는 무엇인가를 상실하여 슬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하위주제인 기쁨과 슬픔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한일 희비의 비율

희비	일본(%)	한국(%)
슬픔	84	96
기쁨	16	4
합계	100	100

일본은 「**슬픔(84%)〉기쁨(16%)**」 이고 한국은 「**슬픔(96%)〉기쁨(4%)**」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슬픔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슬픔의 정서가 상위 주제 희비 내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유행가가 기쁨보다는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기에 적절한 형태의 언어양식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위주제 희비에 속하는 기쁨과 슬픔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기쁨(喜)

기쁨(喜)은 즉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초적인 감정의 긍정적인 상태를 뜻한다. 슬픔과 함께 인간의 기본정서로 유행가에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슬픔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기쁨은 주로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할만한 결과가 그 주요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기쁨, 봄의 기쁨, 자연의 기쁨」 등이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쁨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7) 문절(文節)은 우리말의 어절에 해당한다.

3.1.1 일본의 경우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기쁨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그 원인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님과 재회의 기쁨(50%)〉봄의 도래로 인한 기쁨(25%)〉스키를 타는 기쁨=달밤구경의 기쁨(12.5%)」의 순으로 사랑하는 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가장 많다. 다음은 계절의 도래에 따른 자연현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다. 이 밖에도 스키라는 스포츠 신문물을 통해 느끼는 신기함과 기쁨, 달맞이의 흥겨움 등 다양한 생활의 소재를 통해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1〉은 「マロニエ, トゥーレエッフェル, テラス」 등의 다양한 외래어를 사용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도래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

〈예문1〉
1. 花がさいたよ マロニエの花が 今日も お城の テラスに 立てば はなればなれに ゆく 雲見える あかるい 空の春になったよ
2. パリの街は はるかに見えて サクレ クールの 真白い 屋根も トゥーレエッフェルの 真黒い 塔も 夢で 見たように 淡く見えるよ
3. ここのお城のテラスに さいた 白と赤とのマロニエの花が 風も ないのに ゆさゆさゆれる あかるい 空の春になったよ(テラス, 1933, 高木東六 작사, 高木東六 작곡, 노래 미상)

일본의 기쁨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恋〉舟〉花=二人=娘〉春=桔梗=九段=母=空=船頭さん=旅=夢=スキ=OK=支那(チャイナ)=マロニエ=テラス」의 순으로 「恋」가 가장 많다. 사랑하는 님과의 재회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가장 크다. 「スキ, マロニエ, トゥーレエッフェル, テラス」 등 외래어의 등장으로 이국적인 정서가 새로운 기쁨으로 표출되고 있다.

3.1.2 한국의 경우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기쁨이 차지하는 비율은 4%로 그 원인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풍년을 희구하는 기쁜 마음(74%)〉사랑(25%)」의 순인데, 풍년을 기쁘게 나타내고 있는 곡이 모두 민요조의 곡으로 후렴구 등이 구전가요와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다. 〈예문2〉는 「어허야 데헤로구나 상사뒤야」의 후렴구를 통해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예문2〉
1.에- 만경벌 황소가 우네 만경벌 황소가 우네 쌀보리 사태가 나네 쌀보리 사태가 나네 경축년 쌀풍년일세 농부야 럴럴 농부야 럴럴 어허야 데헤로구나 상사뒤야 우리네 농부들 노래하며 거름질하세
2.에- 금강산 백두산일세 금강산 백두산일세 노다지 사태가 나네 노다지 사태가 나네 금풍년 은풍년일세 모타가 빙빙 모타가 빙빙 어허야 데헤로구나 상사뒤야 우리네 광부들 노래하며 거름질하세
3.에- 연변에 약산 동대에 연변에 약산 동대에 진달래 만발하였네 진달래 만발하였네 꽃풍년 님풍년일세

사랑이 둥둥 노래가 둥둥 얼씨구 절씨구야 상사뒤야 우리네 벗님아 노래하며 꽃구경 가세(금풍년 은풍년, 년도 미상,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진방남 노래)

한국의 기쁨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징을 살펴보면, 「풍년〉달〉오곡=기쁨=님=진달래=큰아가씨」의 순이다. 그 중에서도 「풍년」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풍년, 금풍년, 꽃풍년, 님풍년, 은풍년, 돈풍년, 명풍년, 쌀픙년, 자손풍년」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신민요 형식의 곡이 대체로 흥겹고 동적인 분위기로 나타나는 이유는 후렴구의 경쾌한 리듬과 토속적인 어휘로 인한 것으로 기쁨과 흥겨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 유행가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1.3 비교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기쁨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은 16%이고 한국은 4%로 일본이 한국보다 12% 높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기쁨의 비율이 높은 데에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과 피지배국인 한국의 현실이 달리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난 후 동아시아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등 비교적 여러 상황이 좋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었기에 기쁨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기쁨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징을 고찰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恋, 舟, 花, 春, 母, スキ, 支那, マロニエ, テラス」 등으로 기쁨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서구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인 탓에 「スキ, マロニエ, テラス, OK」 등과 같은 외래어와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유행가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행가에 나타나는 외래어와 외국어는 노랫말에 포인트를 주는 것 이외에도 풍요로운 서양 문물에 대한 일반국민의 동경으로 인한 기쁨과 설레임 등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풍년, 달, 오곡」 등의 풍년에 대한 기쁨이 많다는 점에서 농경민족으로서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고, 「달, 님, 꽃」 등을 통한 기쁨의 표현에서 각박한 현실에서도 풍류를 즐기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기쁨을 나타내는 어휘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총출현어수로도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일제 강점으로 인한 서구 문물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까닭에 외래어나 외국어 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행가의 기쁨을 표출하는 어휘는 양국의 정서적인 차이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특히, 일본 유행가에 등장하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통해 서구문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슬픔(悲)

슬픔(悲)은 즉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초적인 감정 중 부정적 상태를 뜻한다. 슬픔은 주로 희구했던 일의 미완과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그 주요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상실의 슬픔, 처량한 신세 비관, 청춘의 비애, 전쟁의 슬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실로 인한 슬픔으로, 사랑하는 님, 육친, 고향, 조국 등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슬픔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3.2.1 일본의 경우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슬픔이 차지하는 비율은 84%로 그 슬픔의 원인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별(89.2%)〉신세비관(5.4%)〉청춘의 비애(3.6%)〉전쟁(1.8%)」의 순으로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과거로 되돌리고 싶지만 맘대로 되지 않음을 비관하거나 헛되이 보낸 청춘에 대한 애상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서 느끼는 경건한 슬픔 등이 나타나 있다.

〈예문3〉, 〈예문4 [8]〉, 〈예문5〉는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애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문3〉

1. 小さい時から いいなずけ 二人で 真似た ままごとの 庭の さくらの さくにさえ 楽し 昔が 忘らりょか
2. 二人が 大きく なってから 哀しい恋の 巡礼者 あなたは あなたの 道を 行き 私は 私の 道を行く
3. あてない 旅と 知るもののせめてを 頼む 恋心 淋しい 愛の太陽よ 乙女は 泣いているものを(この太陽, 1930, 西条八十 작사, 中山晋平 작곡, 佐藤千夜子,藤本二三吉 노래)

〈예문4〉

1. 酒は涙 溜息か 心のうさの 拾てどころ 遠いえにしの かの人に 夜海の夢の せつなさよ
2. 酒は 涙 溜息か 悲しい 恋の 拾てどころ .忘れた筈の かの人に 残る 心を なんとしょう(酒は涙か溜息か, 1931, 高橋掬太郎 작사, 高賀政男 작곡, 藤山一郎 노래)

〈예문5〉

1. 情の壺にさいた 花 涙の庭に散った花 命もうすくさいて散る 花のこころを だれが知る 私この頃 憂欝よ
2. 情に死する 恋もある 義理ゆえ背く恋もある はかなき 運命 うつし世の 恋の命を だれが知る 私この頃憂欝よ
3. 涙に 秘めし恋の影 うつろに似たるこの 心 悩みは深き 明けくれのくらい 命を だれが知る 私この頃 憂欝よ(私この頃憂欝よ, 1931, 高橋掬太郎 작사, 古賀政男 작곡, 淡谷のり子 노래)

일본의 슬픔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恋〉涙〉花〉夢〉別れ〉春=夜〉雨=心〉思い出=風=日=船=恋心=青春=月=柳=女」의 순이다. 「恋, 別れ」로 인한 슬픔이 여성이 화자가 되어 눈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酒は涙か溜息か」(1931)은 최초로 한국에서 번역된 일본 유행가로 채규엽(蔡奎燁)이 한국말로 취입하여 히트하자, 일본가요의 인기곡은 대개 한국말로 취입되어 한국어판 일본의 엔카[演歌]가 판을 치게 되었다. 한국가요(창작가요)도 일본에서의 녹음과정에서 일본인이 편곡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일본가요와 한국가요의 선율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였으며, 더욱이 1930년대 말기에 이르러 일본말 상용이 강요된 시대의 영향으로 일본가요와 동질화되어 갔다.

3.2.2 한국의 경우

한국의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슬픔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그 슬픔의 원인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별(86.6%)〉조국과 고향의 상실(9.8%)〉청춘의 비애(2.6%)〉신세 한탄(1%)」의 순으로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가장 많다.

〈예문6〉과 〈예문7〉은 님과의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예문6〉은 기약 없이 헤어진 님이지만 굳은 절개로 님을 기다리면서 청춘을 다 바친 헌신적인 당시의 애정관도 잘 나타나 있다.

〈예문6〉

1.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악씨 아롱져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움
2. 삼백연 원안풍은 노적봉밑에 님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으니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3.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타 옛상처가 새로워진다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목포의 눈물, 1935,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예문7〉

1.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어주나 휘파람 소리
2.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3.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던고 모두다 흘러가면 뜻 없건마는 외로히 느끼면서 우는 이 밤을 바람도 문풍지에 애달프구나(애수의 소야곡, 1938, 이노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예문8〉은 일제의 강제 점령으로 망국의 슬픔을 나타낸 곡으로 「황성옛터, 성, 옛터」 등이 빼앗긴 조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망국과 망향의 서러움은 당시의 시대적 비극으로 유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성옛터는 지금 폐허가 되어 달빛만 고요하게 비추고 있는 곳으로 외로움과 무상감마저 느끼게 한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은 채 만주와 북간도로까지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황성의 적」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것이다.

〈예문8〉

1.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설운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 잠 못 일워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져요
2. 성은 허물어진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의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나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덧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3. 나는 가리라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가 없어요 아- 한없는 이 심사를 가슴 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터야 잘 있거라(황성의 적, 1932, 왕 평 작사, 전수린 작곡, 이 애리수 노래)

www.kci.go.kr

이 밖에 슬픔의 원인으로는 다시는 안 올 청춘의 짧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버린 청춘의 비애와 뱃사공의 처량한 신세한탄으로 인한 슬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슬픔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눈물〉이별〉밤〉님(그대)〉마음〉꿈〉가슴〉설움=청춘〉항구〉추억=꽃=비〉달=한=한숨〉몸=고향=포구〉부두=배=황성=편지=천리길=봄=바다〉천년=노래=고개=만포선=탄식=울음=선창=하소=연락선=해당화」의 순이다. 사랑하는 「님」과의 「사랑, 이별」로 인한 슬픔을 「눈물」로 표출하고 있다. 이 시기의 「님」은 사랑하는 연인 이외에 잃어버린 조국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유행가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을 상징하는 어휘로는 「님」이외에도 「한양성 오백년, 천년꿈, 왕흥사 옛터전, 황성옛터」 등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가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빼앗긴 조국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조국과 고향 상실로 인한 비탄의 현실을 제대로 표출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란 통속적인 주제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제의 강제 검열이 심했던 강점기 당시 한국 유행가의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3 비교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슬픔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은 84%이고 한국은 96%로 한국이 일본보다 12%나 높다. 이와 같이 한국의 슬픔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의 국권 침탈로 인해 망국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그로인한 비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위주제 희비 중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의 비중이 높으며, 그 원인으로는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것이 특히 높다. 이는 내면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에는 슬픔, 후회, 미련 등의 심정논리에 근거한 토로 곡조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므로[9],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진솔하게 토로하기 위해서 유행가만큼 대중적으로 접근 용이한 것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별의 슬픔에 대한 정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지만 망국과 망향의 슬픔은 일제 강점기란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슬픔이 해소될 겨를 없이 계속 누적되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슬픔을 표출하는 어휘별 특징을 비교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恋, 花, 夢, 別れ, 春, 夜, 雨, 心, 思い出, 風, 日, 船, 恋心, 月, 柳, 女」 등을 통해 연인과의 이별이나 사랑, 추억 등에 관한 슬픔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한양성 오백년, 천년꿈, 왕흥사, 옛터전, 황성옛터」 등을 통해 망국의 슬픔을 사랑하는 님과의 헤어짐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과 「사랑, 눈물, 이별, 편지, 울음, 탄식, 선창, 연락선」 등을 통해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슬픔을 표현한 것이 있다.

슬픔을 표출하는 한일 양국의 공통어휘는 「涙·눈물, 恋·사랑, 花·꽃, 夢·꿈, 夜·밤, 心·마음, 別れ·이별, 春·봄, 雨·비, 思い出·추억, 月·달, 船·배」 등으로, 유행가에 많이 쓰이는 고빈도 어휘들이다. 특히, 「涙·눈물, 恋·사랑, 夢·꿈, 夜·밤, 心·마음」 등은 한일 양국 유행가의 상위빈도어휘 25위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표출해 주는 대표적인 공통어휘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슬픔을 표출하는 어휘는 양국 모두 내면의 심정을 토로하는 어휘들로 유행가라고 하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알 수

www.kci.go.kr

9) 최상진, 손영미(1999), 「심정적 대화 상황 분석을 통한 심정 심리분석」, 『한국인의 심성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16

있다. 그러나 「님」은 조국, 「春·봄」은 밝은 미래, 해방 등과 같이 같은 어휘라고 하더라도 양국이 처해진 시대적인 상황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의미 영역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시대상 및 대중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한일 유행가의 주제 중 희비를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적 특성을 비교 고찰하여 보았다.

상위주제 희비 내에서 기쁨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슬픔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이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과 피지배국인 한국의 현실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을 표출하는 어휘는 한일 양국의 정서적인 차이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특히, 일본 유행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외래어와 외국어를 통해 서구문물에 대한 수용과 관심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위주제 희비 중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이별의 슬픔에 대한 정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지만 망국과 망향의 슬픔은 일제 강점기란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님, 봄」 등과 같이 당시의 시대상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슬픔을 표출하는 다수의 한일 양국의 공통 어휘들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유행가는 일본의 유행가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슬픔이 원초적 감정의 보편적 표출이라는 심정적인 이유와 당시 한국의 유행가는 일본으로부터 수용되어 향유될 수밖에 없었기에 일본 유행가의 상당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의 원초적 감정의 발로인 기쁨과 슬픔의 희비는 유행가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주제로 한국 유행가는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후에는 본고의 결과를 토대로 1945년 이후의 한일 양국 유행가의 희비를 나타나내는 어휘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유행가에 표출되는 어휘의 특성과 변화양상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김광해(1998)「일제 강점기 대중가요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유성기 음반 채록본을 중심으로-」『韓國語意味學』3輯
김광해(1999)『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연구』박이정
김희정(2001)「韓日両國 流行歌語彙의 対照硏究 -1945년부터 1960년까지-」『日本語學硏究』第3輯 韓國日本語學會
_____(2002)「日帝強占期 以後의 韓日 両國 流行歌 語彙의 対照硏究」『日本語學硏究』第6輯 韓國日本語學會
_____(2004)「韓日流行歌에 나타난 自然物을 나타내는 語彙의 考察 -1945年부터 1960年까지-」『日本學報』第58輯 韓國日本學會
_____(2007)「한일유행가의 성별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 -1925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日本近代

www.kci.go.kr

學硏究』第18輯 韓國日本近代學會
_____(2007)「한일유행가의 남성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 -1925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日本語學硏究』第20輯 韓國日本語學會
박미정(1992)『일제하 대중가요 가사의 형식과 주제분석』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찬호, 안동림(1992)『한국가요사』현암사
유화웅(1976)『大衆歌謠의 発生形態와 時歌的 限界-1920年代-1940年代歌謠를 中心으로-』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영미(1993)「대중가요」역사비평
장유정(2004)『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유성기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쓰루미 슌수케・이문환(2001)『전후 일본의 대중문화』한림신서 일본학총서10 小花출판사
조동일(1994),『한국 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차준경(2004)『국어명사 다의 현상의 체계성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최상진, 손영미(1999)『심정적 대화 상황 분석을 통한 심정 심리분석」『한국인의 심성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伊藤雅光(1997)「表記からみた松任谷由実の歌詞(3)」『日本語学』16-2
エツコ、オバタ、ライマン(1996)「歌詞にみる英語表現の増加現象」『日本語学』15 明治書院
コミュニケーション監修(1998)『日本語語彙大系 1 意味体系』岩波書店
大野 晋・浜西正人(1997)『類語国語辞典』角川書店
岡野弁(1988)『演歌原流・考』学芸書林
加太こうじ(1981)『流行歌論』東書選書 70 東京書籍
佐竹秀雄(1981)「和語・名づけ・流行歌」『言語生活』359 筑摩書房
沢野 勉(1989)『歌でつづる食の昭和史』芽ばえ社
高橋磌一(1985)『流行歌でつづる日本現代史』あゆみ出版社
千明浩己(1989)「現代流行歌の語彙研究」『上越教育大学国語研究』第三号
鶴岡昭夫(1995)「歌謠曲の五十年」日本語学14 明治書院
堤昌司(1991)「ロックが歌詞をかえた」『日本語漂流記』創現社
中野洋(1977)「流行歌五十年, ことばの移り変り」『言語生活』315 筑摩書房
_____(1982)「流行歌の語彙」『講座日本語の語彙』明治書院
中野洋, 郭挙昆, 王志英, 中野文子(1997)「中国流行歌の変化 -日中流行歌の対照語彙論的研究から-」『日本学研究』6 経済科学出版社
中野洋, 王志英, 郭挙昆(1996b)「日中流行歌の語彙の対照研究」『日本語学』15 明治書院
中野洋, 王志英, 郭挙昆, 中野文子(1995)「中国における流行歌の語彙」計量国語学 19-8 計量国語学會
日向茂男(1977)「演歌とニューミュージックの比較表現表現論」『言語生活』315-12 筑摩書房
平岡正明(1989)『大歌謠論』筑摩書房
堀 雅昭(2001)『戦争歌が映す近代』葦書房
水谷静夫(1978)「昭和初期流行歌での語の度数分布」『計量国語学』9-3 計量国語学會
矢沢寛(1994)『流行歌 気まぐれ50年史』大月書店
横矢島古外3(1994)『新版 日本流行歌史 上』社会思想社
_____(1994)『新版 日本流行歌史 中』社会思想社

www.kci.go.kr

〈 要 旨 〉

韓日流行歌の喜悲を表わす語彙の比較考察

-1925年から1944年までを中心にして-

本考は1925年から1944年までの時代相及び大衆の情緒などを考慮して韓日流行歌の主題の中、喜悲を表わす語彙の意味的な特性を比較し考察してみた。

上位主題の喜悲の中で「喜び」が占めている比率は日本が韓国より高く、相對的に「悲しさ」は韓国が日本より高かった。これは植民支配をしていた日本と被支配國の韓国の現実が各々異なる樣相で反映されたからである。「喜び」を表出している語彙は韓日両国の情緒的な差を特徵的によく表わしていて、殊に、日本の流行歌に登場する多樣な外來語と外國語を通じて西歐文物に対する受容と關心が反映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また、韓日両国共、程度の差はあるが上位主題の喜悲の中で「喜び」よりは「悲しさ」の比重が高く、その中でも恋人との離別に因する「悲しさ」が一番多かった。離別の悲しさに関する情緒は韓国と日本がほとんど似ている。しかし、亡國と亡鄕の悲しさは日帝强占期という韓国の特殊な時代的な狀況に因することで、「님,봄」などのように當時の時代相と大衆の要求に從って語彙の意味が擴張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悲しさを表出している韓日両国の共通語彙、「淚·눈물, 恋·사랑, 花·꽃, 夢·꿈, 夜·밤, 心·마음, 別れ·이별, 春·봄, 雨·비, 思い出·추억, 月·달, 船·배」などは両国の流行歌で時代と場所を関わらず広く使われた語彙であり、これは內面の心情を吐露する語彙であった。以上で考察して見た通り、人間の原初的な感情の發露の「喜び」と「悲しさ」の喜悲は流行歌でも一番普遍的な主題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今後には本考の結果を基にして、1945年以後の韓日両国の流行歌の喜悲を表わす語彙の比較考察して、流行歌に表出される語彙の特殊性と變化樣相などをもっと綿密に察して見るつもりである。より進んで、時代的な變化によって流行歌に反映される有機的な語彙の本質的な特殊性も究明したい。

▣ 김희정(金姬廷)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연구교수

quay1109@hanmail.net

■ 투 고 일 : 2008년 9월 30일

■ 심사개시 : 2008년 10월 23일

■ 심사완료 : 2008년 11월 23일

www.kci.go.kr